

충남도립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김홍진 학과장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드론'으로 우리나라의 지적(地籍)을 관리하다

미국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약 17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드론, 정부도 드론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드론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나라 토지의 경계와 면적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가 있다. 충남도립대학교 토지행정학과가 그 주인공인데, 토지행정학과도 드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토지행정의 실무에 반영하고자 교육을 시행 중이다. 그 이면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김홍진 학과장의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충남도립대학교 토지행정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람에 대한 호적(戶籍)이 있는 것처럼 땅에는 지적(地籍)이라는 토지에 대한 등록정보가 있는데, 이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서비스하기 위한 학문을 다루는 학과가 토지행정학과입니다. 이러한 실무를 행하기 위해 토지관련 행정, 법, 기술을 공부합니다. 1998년 개교 이후 우리학과는 지속적으로 전국 최고의 국가자격증 취득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70%에서 98%의 지적산업기사 취득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구열 전통으로 지적행정 공무원을 현재까지 150여명 배출했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전경



충남도립대학교·나래무인항공MOU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드론사진측량학’을 교육과정에 반영했습니다. 반영 계기와 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대학은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운영을 검토해 왔으며, 작년에는 (주)나래무인항공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4차 산업시대의 핵심기반 중 하나인 드론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작업 규정을 제정하여 드론을 이용한 측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드론사진측량학’을 반영했습니다. 촬영을 수행하기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취득, 정사영상 및 지도제작까지의 결과물 생성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능력 등을 구비함으로써 실무에서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드론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드론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 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데, 학과장님께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신 계기와 교육철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연구원을 꿈꾸며 대학 시절을 보내다 시간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고, 가르치는 일도 보람 있고 흥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교사 발령통보도 받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교수의 길을 통해 연구와 티칭을 동시에 실현하는 목표를 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은 교수,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교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비전을 알고 싶습니다.

“국토공간정보를 구축 관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행정이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전략을 세우고 9대 실천과제를 구상하여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3가지 전략은 체계적 학습시스템 운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단계적 교육, 측량능력을 갖추기 위한 체험실무교육입니다. 실천과제는 지적산업기사 특강, 공채시험 준비반, 스터디그룹 구성, 공간정보교육을 위한 교육운영, 공간정보 교육기관 연계 심화교육, 공간정보기술 체험학습,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특강, 드론사진측량 실무교육, 드론사진측량 실습실 구축 및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이와 같은 운영을 통하여 신입충원율 100%, 국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단체사진



드론조종 교육장면

가산업기사 취득 80%이상 및 우수일자리 취업 70%이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과장님 개인적인 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최근 무인비행장치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를 정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위해 교관자격까지 취득하고자 시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드론사진촬영술을 공부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드론으로 촬영해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틈틈이 한문서예를 공부하고 공모전에도 출품하곤 하는데 나중에 재능기부를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유창한 영어실력을 갖추기 위해 현재 2년제 외국인교과화상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현지인과 막힘없이 대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사람이 행복하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본지를 빌어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젊은이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바람’만을 가지기 보단, ‘성공은 지루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염원과 정성과 노력으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토지행정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 드론사진측량을 배우고 싶은 분 충남도립대학교 토지행정학과 문을 두드리 주십시오.”

윤근호 기자 ygh@monthypeople.com